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사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2020 신년사 내용을 모았다. 신년사의 내용은 편집상 경자년 새해 인사말과 격려 및 덕담 부분 등은 일부 생략했지만,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편집했다. -편집자 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주력산업 재도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겠다”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흰 쥐처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을 풍요롭게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은 해양수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선박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얼라이언스에 현대상선이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항만분야에서는 2040년까지의 미래 항만 인프라 건설 방향을 담은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세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해양수산에 받아들이고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해양수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마련한 정책들이 국민들과 종사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주력산업 재도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경영실적 개선을 가시화하고, 해운항만 기업의 규모화와 대형화를 실현함으로써, 해운산업 매출액 40조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 스마트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를 향한 발전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e-Navigation,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양식 등 4대 핵심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DNA를 심어가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해양로봇과 스마트 장비 산업 등 해양수산 5대 핵심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2030년까지 11.3조원 규모의 해양수산 신시장을 창출하고,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오션스타 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연안의 경제활력을 높이도록 항만 인프라의 확충과 어촌 재생,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 신항 등 신항만 인프라를 본격 확충하겠습니다.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개발하고, 섬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양환경과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2년까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30%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와 항만미세먼지 50% 저감을 위한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하역현장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안전을 기초부터 다시 살피고,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안전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객선, 어선, 화물선 등 선박별 안전 위해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설비 강화, 기상악화 시 입출항 및 위치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과 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위험관리 역량도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신뢰받고 유능한 해양수산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책성과 창출에 덧붙여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 구현'입니다.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는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확보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해양의 규범 정립을 선도하고, 세계 바다의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존경을 받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원칙과 책임에 맞게 행동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 인프라를 기꺼이 나누는 나라이자, 미래 세대도 해양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의 교류협력과 같이 상호 협력의 바다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해양모델 선도국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2020년을 힘차게 향해합시다. 저와 해양수산부 직원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영안 Korea P&I Club 회장

###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 함께 하겠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된 Korea P&I Club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설립 당시 2백만 불에 불과했던 수입보험료는 현재 2,900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 선대는 1,000척을 넘는 건실한 P&I 클럽으로 성장하여 든든한 한국해운의 안전판이 되었습니다. P&I 보험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Korea P&I Club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클럽, 우리 가족이라는 회원사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Korea P&I Club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클럽의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성년이 되는 Korea P&I Club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 법률자문, 최신정보,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 Korea P&I Club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우리 클럽의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으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정보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선박사고 감소를 위하여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해운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사고 데이터 분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회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Korea P&I Club 모든 임직원은 올해에도 한국해운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해운의 중요한 자산이자 인프라인 Korea P&I Club가 해운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해운재건사업들 속도감 있게 추진, 미래성장 해운생태계 조성”**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을 보내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9년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이후 첫 돌을 맞이한 해이자, 해운재건을 위해 준비해온 다양한 계획들이 첫발을 내딛었던 실질적인 ‘사업 원년(元年)’이었습니다. 공사는 투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통해 국적선사의 신조선 발주 및 선대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국적 원양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도입과 항만터미널 투자 등 영업자산 확보에 참여하고, K2 통합법인과 같이 연근해선사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더불어, 친환경선박·설비장치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같은 해운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해운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해 공사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산업가족 여러분,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해이자,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의 반환점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마련한 해운재건 사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성장 창출을 위한 해운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시장수요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여 중소선사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균형감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선사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선사가 중견선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

습니다.

둘째, 금융·항만·화주 등 해운 연관 산업간 협업을 토대로 해운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공사는 선박금융기관 협력 확대, 국내·외 항만터미널 및 배후물류시설 공동투자,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여 해운을 둘러싼 연관 산업간 상생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해운산업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운시장에 편재된 정보를 통합하고, 해운시황정보의 품질 향상을 통해 양질의 해운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운산업 및 기업 진단사업에 착수하여 개별 선사 및 시장이 직면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해운재건사업의 정책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실리 추구를 명분으로 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IMO 환경규제 발효 등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양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올해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안정적 이행은 물론,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희망찬 10년을 약속하는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 “해양산업 전체 동반발전을 도모하는 상생 협력틀 구축”

새해를 맞이하여 해양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산업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해상직원 여러분과 항만하역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역사의 뒀안길로 접어든 2019년 한해를 돌아보면, 어느 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했습니다. 안으로는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 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으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한·일간 외교문제가 경제·안보문제로 확산되는 등 정치·사회적 빅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선 확대와 선진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세 지속, 그리고 중동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증폭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장기 해운불황에서 벗어나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해운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으며, 이는 곧 해운부대사업과 조선 등 해양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해양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근간이 되는 해운시장의 전망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해사기구의 고유황유 사용규제 등으로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운중개 및 주선업을 비롯하여 항만하역업, P&I 보험 및 선급, 조선 및 기자재 등 해양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

겠습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에서도 올해 해양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내·외항선사간 협력증진은 물론이고 해운부대업을 비롯한 해양산업 전체가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틀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회원단체 및 기관들의 중점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통하여 측면 지원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해양수산 공동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해양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활동과 사회기여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바다산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연합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회원단체 및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당국과 해양관련 기업 및 단체,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와 항만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해상직원과 항만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

**“대형선사와 중소선사간 균형발전 도모, 사랑받는 해운업 홍보”**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은 흰쥐의 해로 근면과 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흰쥐의 해를 맞이하여 해운가족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국내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일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이 항로에 선박을 취항시키고 있는 국적선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카페리선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이란 제재 강화로 촉발된 호르무즈해협의 긴장고조는 세계해운업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국적선 적취율 향상과 함께 경쟁력있는 선박 100여척이 발주되었고, 톤세제도의 5년 연장과 함께 우수선화주 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간 경쟁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불황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해운시장 또한 선복과잉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데도 저유황유의 가격과 공급, 스크러버의 작동 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해운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한해에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의 마음가짐으로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새로 다가올 시장에 대

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회원사들이 자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화물 확보와 경쟁력있는 선박 확충, 경영안정 지원 등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우수 선화주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기구의 황산화 규제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규제 강화추세에 대해 회원사들이 원활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노동정책이 원만한 노사협력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선원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중견·중소선사들의 애로사항 개선을 통해 대형선사와 중견선사들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에게 사랑받는 해운산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건전하고 튼튼한 해운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선급을 비롯하여 P&I클럽, 해운중개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해운관련업종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불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해운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그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고의 검사와 기술서비스 제공”

지난 한 해 우리는 치열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수입 측면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470억 원이 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IACS 의장선급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 수주한 신조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1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2020년 올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지난해 경영 컨설팅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선급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60년 전 선배님들은 가슴속 열정 하나만으로 한국선급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오늘날 세계 7위의 국제선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모두 한국선급이 100년, 200년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를 스스로의 자발적 행동변화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직의 일부에서 보였던 안일함을 반성하고 임직원 모두가 더 강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참여하며, 책임지는 성숙한 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노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네 가지 경영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선급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경영방침은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고의 검사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선급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며, 신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선주영업 강화와 3자 검사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인적자원’을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금년도 중점 추진계

획으로는 첫째, 검사품질 제고를 통한 등록선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선박안전 모니터링 및 보고서 검증, 그리고 검사원 직무역량교육 강화를 통한 검사품질 제고로, 입급선의 중대 해난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선박 집중점검을 통해 잠재적 해양사고 리스크를 제거하고, 검사 최종 결과물인 증서 및 보고서의 품질제고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평균 직무교육 시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선급고도화와 선박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D 도면승인 기술의 개발, Condition Based Maintenance 등 빅데이터 검사기반 구축, Remote survey 및 사이버보안 기술, 모든 검사자료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선급으로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LNG, 암모니아, 수소연료 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기술규칙 개발과 도면승인기술 고도화를 통해 선급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주영업 강화와 신성장 동력발굴 및 추진입니다. 맞춤형 기술영업, Mother Ship 디자인 확보를 기반으로 선주영업을 강화하여 금년에는 전 세계 신조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2025년도 1억 톤 목표달성을 위한 원년으로서 현존선 등록 또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지역분부를 활용한 현지 선주 영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비선급 분야인 인증 및 합정사업에도 노력하여 ASME 및 MED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신조함정 검사 및 수출함정 검사도 지속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직문화 쇄신입니다. 2019년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권고된 경영혁신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내부 조직 결속력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맨아워관리시스템도 정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KOMSA호 본격적인 항해 시작하는 한 해”**

지난 2017년 12월 법안이 발의되고, 꼭 1년 뒤인 2018년 12월에 법안이 제정된 후 지난해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출범하기까지 치열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 발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였고, KAIST · 기상청 · 해군정비창 · 한국해운조합 등 해양안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부문에 있어 성과도 많았습니다. 201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 획득 이후 6년만인 지난 2018년 양호 수준인 B등급을 획득하였고, 2019년 청렴도 우수기관 및 공직복무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은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출항 준비를 마친 KOMSA호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출범 당시 내걸었던 ‘출범 10년 이내 해양사고 50% 줄이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어선, 화물선, 여객선 등 10만여 척의 선박검사와 160척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검사제도의 효율적 · 체계적 운영을 위해 ‘KOMSA Code’ 개발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박검사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취약선박 전담관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안전기술정보 제공 등 현장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

들겠습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 질소산화물 저감시스템 개발과 미래 해양교통환경을 대비한 친환경 플라스틱 선박 및 전기복합 추진 어선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연안해운 온실가스 및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해운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 운영 등 국제해사기구의 해양대기환경 관리제도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한 해양교통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양교통안전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해사업무추진을 위한 국제해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IMO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의제개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개도국 대상 ODA사업 · 기술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교통이용자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권역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으로 선박검사, 선박안전점검 및 맞춤형 체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정보, 기상정보 등 해양교통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제안 및 기술개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양교통안전체계는 ‘안전문화’라는 망망대해에 ‘교통체계’라는 등대를 세우는 작업과 같습니다. 등대의 불빛으로 망망대해 밤길이 밝혀지듯 어디든지 촘촘한 안전망이 놓여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전문화라는 것은 쉽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단 40년의 저력으로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해양교통안전 종합 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한 KOMSA호의 항해를 지켜봐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KOMSA 약속은 10년 이내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 “해양환경분야 전문역량으로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 이행”

지난해 우리 공단도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단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초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친환경적 운영 재개, 첨단시설을 갖춘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운영, 해양공간계획 전문기관으로 지정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함은 물론 공단의 핵심가치 재정립 및 조직 혁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 대통령표창' 및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공직복무관리 최우수상' 등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다수의 표창과 인증을 수상하였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 이라는 공단의 비전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해양환경 분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만대기질 측정망 구축 운영 및 노후예선의 LNG추진선 대체 건조를 통해 항만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 정화사업의 지속 추진과 함께 지난해 남해 EEZ에 이어 올해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도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신남방정책 관련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기술 및 인프라 전수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방제 분야에서는 침몰선박 및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잔존유 회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기름여과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어촌계와 방제 관련 협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해안방제체계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확대하고 지난해 마무리 한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설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박 건조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5개 해양환경정보에 대한 통합서비스 실시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추가 운영을 통하여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제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관리 강화,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해양수산업의 전망도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 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인들은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강한 의지와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내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는 쥐띠 해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다산(多産)과 다복(多福)의 상징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해양수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전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양환경공단도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김종성 한국항만물류협회장**

**“항만기능 유지.. 법률 업계 의견 반영되도록 노력”**

지난 한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오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올 한해도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 확산으로 세계교역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기의 빠른 하향세가 이루어지는 등의 대외 위험 요소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및 수출경기 둔화 등 대내 악재가 겹쳐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한해 항만물류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국내 항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건의하였던 항만하역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기존 2.8%에서 0.8% 수준으로 인하되게 함으로써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TOC가 제출한 화물유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이 연도별로 부과되고 있었으나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추진하여 앞으로는 위약금을 연도별이 아닌 총 계약기간(5년 내외)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도 명확히 규정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TOC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 안보의 비상사태 발생 등 유사시 확실한 물자 수송 체계를 확보하여 항만기능 유지하기 위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11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이 '20. 1. 1부터 2년동안 체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체 수 확대 및 임대료 감면금액 확대 등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한 해 동안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데는 해운항만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작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지만 일본과의 갈등, 미중 무역분쟁, 블랙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다수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어 항만물동량 정체가 우려될 뿐 아니라 항만 친환경화 규제 강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 부담으로 인해 항만물류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대내외적 위험요소들을 극복하고 국내 항만물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도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일과 회사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연안해운 시장 프레임 전환, 대국민 인식 제고”

우리 KSA는 지난 해, 창립 제70주년이라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해운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욱 새로운 7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션과 비전, CI 등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KSA의 새 시대를 선포하였고, 기념식과 세미나를 통해 더욱 미래지향적인 KSA의 시작을 여러 해운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화물선 면세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힘을 보태 올해 상반기, 그 빛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만운영자공제 신규 출시와 공제상품의 지속적인 개정, 꾸준한 효율 인화로 조합원들에게 더욱 도움 되는 해상보험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과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이어가며, KSA의 경쟁력을 더욱 드높인 한 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KSA의 이러한 모든 발자취는 오직 조합원과 해운가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에도 최선을 다해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해는 더 춥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규제와 변화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운업계 또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올 해 조합은 더 많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안해운 시장의 프레임 전환과 우리 해운업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화물선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 해운을 친환경 산업으로 선제적으로 전환 추진하며, 여객선 대중교통체계 편입 지원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겠습니다.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역량 기반 강화로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그 역할을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전국 여객선 터미널의 고객 서비스를 공항, 철도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모바일 승선권 확대 및 도시민 승선절차 간소

화, 실시간 승선관리 등 전산매표 시스템의 고도화로 예매부터 승선까지 국민들이 경험하는 여객선 터미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활력 회복을 이끌겠습니다. 해운시장의 과당 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해운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선박취득부터 운영, 매각 등 조합원의 각종사업 단계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적극 지원. 선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내항선원 양성과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조합원 수요에 맞는 석유류 공급과 자유항유 등 유종 변화에 따른 완벽한 석유류 공급체계 구축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조합원 대출금리 감면 등 동반성장 금융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사 위험부담 최소화를 통한 최고의 해상보험 서비스 제공도 이어질 것입니다. 각종 해사법 개정에 대비한 특별약관 신설 및 공제상품별 보장범위 확대로 조합원의 더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클레임 처리절차 안내와 현장 밀착형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속·정확한 공제금 산정 등 공제금 지급 프로세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종합 해상보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격변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발맞추는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대국회 및 정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정책지원 등의 추가 확보를 이끌어내며, 해운관련 단체 지원제도 신설 등 조합법 개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조합원 지원 혜택을 최대화하겠습니다. 신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중단 없는 사회공헌 활동과 부패 방지 노력으로 투명한 조직,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재훈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

**“협회 창립 50주년, 운영 내실화로 회원사 업무활동 지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알리는 황금빛 태양이 밝았습니다. 경자년 하얀 쥐의 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한 감정으로 2016년 이후 對중국 수출기업과 카페리션사 등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되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지소아미 종료 예정 통보 등 양국 간 갈등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쳐 한·일 통상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 밖에 미·중 무역전쟁도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미국의 통상 압력 등 지난해의 이슈들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우리 회원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헤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한 회원사 임직원들의 노력과 투지에 다시 한번 찬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4월 11일은 우리 협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협회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한국국제해운대리점 50년사를 발간하고 어려웠던 해운업의 역사를 초창기부터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국제해운대리점들이 담당했던 역할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 역사의 발간을 계기로 오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수많은 고초를 마다하지 않은 선배님들의 노고를 되새겨 보고 더욱 영광된 앞날을 기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회원사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등록갱신제도, 항만운영제도, 대리점수수료 표준요금제 도입, 보고 및 조사로 사후관리 철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해운법을 통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법인세 공제 제도 등의 신설로 외국선사 차별 대우하는 법들을 개선하고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1곳의 회원사를 새로 영입하고, 각 분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운물류업계와 원활한 유대관계를 조성했습니다. 협회와 회원사 간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 발전시킨 협회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전망보다 높게 2.4%로 잡은 정부는 지난해 잠정 성장률을 한참 밑돌았던 경제가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의 재정 집행과 철저한 금융·외환시장 관리 등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등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운 전망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동 정세 변화, 브렉시트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컨테이너선시장은 선복 증가율이 수요를 웃도는 3%를, 벌크선시장은 케이프 선대 증가율이 4.9%로 물동량 증가율을 넘어서는 공급과잉으로 상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따른 스크러버 설치, 연료비 인상 등 운항비의 증가도 선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운업도 4차산업혁명으로 해운서비스를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법제도 등을 개선하는 질적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야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기관과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동참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임상현 한국도선사협회장

## “효율적 도선으로 전세계 해양환경보호 노력에 부응”

해운불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며 특히, 올해는 강력한 변화를 체험하겠습니다. 일명 ‘IMO 2020’ 프로젝트가 올해 1월 1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세계 모든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대폭 낮춰 배기가스를 배출해야 합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 선박은 IMO(국제해사기구)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해운업계는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사가 늘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었던 ‘안전(해양환경보호)’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전면에 내세워진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IMO가 2025년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기준 대비 30%로 감축하는 추가 규제를 예고한 만큼 그 움직임이 지속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해운업, 조선업, 철강업 및 정유업 등 저마다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도선사는 ‘해양환경보호’라는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선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에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여파로 그동안 임의도선구로 지정되어 선사가 요청할 경우에만 도선을 실시했던 부산 다대포항과 용호부두가 강제도선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보호에 발맞춰 천연연료(LNG)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주에월항의 LNG 터미널과 경남 통영항의 LNG 터미널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는 등 ‘안전’을 최상위 가치로 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도선사 역시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 도선사는 전시·사

변과 같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장애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필수도선사’로서 비상시 활동합니다.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우리의 합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협회 역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시드니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도선사포럼에 참석해 아시아국가도선사와 교류하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1차 IMO 총회에 참석해 IMO 이사국 A그룹에 재선출을 위한 공동교섭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5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도선사협회(IMPA) 총회에 협회의 국제업무전문회 도선사 위원이 참석하여 세계도선사와 교류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널리 공유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IMPA 총회에서 논의되고 심의되는 안건이 IMO에 국제협약으로 채택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러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의 연구교육기관인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KOPEC)는 지난해 정부의 전략과제인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도선·예선 지원서비스 개발)’ 연구용역에 참여해 새로운 시스템에 도선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교육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개선에 더욱 힘써 최근 신규도선사 선발과 동시에 은퇴 도선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나 간극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해운물류업계는 ‘Port to Port’ 수준에서 벗어나 ‘Door to Door’ 서비스까지 이용자를 만족시키고자 각고의 노력 중입니다. 우리 도선사 역시 이 해운물류 흐름의 한 가운데서 활약하는 만큼, 주어진 몫을 잘 해내야겠습니다. 변화의 최일선,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해운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제언을 바랍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신항 다수터미널 운영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 선진체계 구축”

지난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내 정치가 그렇고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 갈등, 북-미, 남-북 관계 등 우리 부산항과 가까운 국외 정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부산항의 물동량은 2,190만 TEU를 달성하였고(전년대비 1.1%↑), 환적 물동량은 전년 대비 1.3% 성장한 1,157만 TEU로 선방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BPA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표창, 포상, 인증 등은 이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한 형태일 것입니다. 지식경영대상(국무총리상), 교육기부대상(교육부총리상), 대한민국 봉사대상(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상), 노사문화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항만운영 혁신 우수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그 밖에 안전, 인권에 관한 공인기관 인증 등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우리공사의 대표 지표인 물동량은 3.2% 증가한 2,260만TEU로 설정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전망과 해운 환경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수준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양적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항만 산업업계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사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올해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해가 되기

를 바랍니다. 내부 갑질과 괴롭힘 방지는 이제 인식의 단계를 넘어 생활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청렴도 조사에 반영되는 내부 만족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부서장들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부서원들을 존중하는 개인 혁신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다름과 그름을 구분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RP 재구축 등을 통해서 업무의 시스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워라벨의 가시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 공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개개인의 자기개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1등 인재. 우리가 설정한 인재상입니다. 둘째, 공기업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아갑시다. 안전, 환경,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구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은 우수사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권경영은 지난해 시범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에 정착시키고 외부로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청와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7개 공기업이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공사는 항만건설, 운영, 관리 전반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합니다. 더불어, 민간분야로 확산시켜, 항만물류업계를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주력합니다. 또한 우리 부산항은 부산 경남지역의 한 부분임을 명심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부산항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2022년 기반시설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단계 북항재개발, 우암부두, 다대부두 등 유희 및 노후부두에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어, 사람이

붐비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부산항 선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만관리의 공공성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항의 다수 터미널 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터미널 운영 통합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운영사가 선정될 서컨 2-5단계 부두는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진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세대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항만, 스마트 항만을 만드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악한 항만연관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부산항의 글로벌 지식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산항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의 한 노드입니다. 우리는 세계 항만들과 함께

고민하고 서로 더 나은 것을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6위 부산항의 위상에 맞게 글로벌 지식공유 및 전파에 노력합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 및 해외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공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항만공사 설립 취지대로, 글로벌 수준의 항만공사 체계에 맞는 항만관리자로서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과 책임' 기조 속에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 “해기전승과 해기사 위상제고에 더욱 박차”

새해 첫날 아침, 업계 모든 관계자분들이 그러하듯 해운업의 밝은 앞날을 염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9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극적인 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해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해기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에 매진하였습니다. 정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를 노·사·정·학과 함께 저지해 2026년에 20%만을 감축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결과를 얻었고, 해기 단절을 막아 해기 전승을 이룰 수 있도록 6개 해기사 관련 단체를 연합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새해에도 협회는 해기사를 대표하여 해기사에 관한 이슈에 집중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1월 1일 협회 전용 어플을 정식 개시하여 해기사들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하고, 해·육상을 망라한 범국가적 해기 전승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해기 전승과 해기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동심만리(同心萬里)’의 자세로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첫날에 새긴 다짐을 자양분으로 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비상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물동량 창출과 해양관광 여객 유치에 전력 다해”**

우리는 지난 한 해 △3년 연속 ‘컨’ 물동량 300만 TEU 이상 처리 △크루즈터미널 개장 및 불꽃축제 개최 △인천항 안전사고 제로 △해양관광 여객수 200만명 돌파 △경영평가 A등급 달성 △공공구매 우수 및 평창동계올림픽 공로 대통령 표창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음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외 불확실성의 증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란제재 등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해운물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경계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물동량 증가세 둔화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현실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천항이 모두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차별화 된 경쟁력을 만들어 세계 속에 경쟁항만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동량 창출 및 해양관광 여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325만TEU와 여객 220만명 달성목표는 전사적 역량을 쏟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신규항로 유치를 통한 서비스 권역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항로 서비스 수는 그 항만을 대표하는 경쟁력 지표 중 하나입니다. 크고 작은 촘촘한 항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도권 소비 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조기에 확정해 인천항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인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인천항을 이탈한 항로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해 필요한 항로 정보, 변

화되는 물류환경을 적극 설명하고 화주-선사-터미널간 서비스 매칭을 통해 기존 항로를 되살리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작년 해양관광의 포문을 연 크루즈터미널 개장과 함께 해양관광 여객 수 200만명을 다시 회복했지만, 크루즈 기항 항차 감소 등 절반의 성공만 거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인바운드 여행객에 의존해 온 한계를 월드 크루즈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인 아웃바운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여행객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해양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경제 확립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천항의 외적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지역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협력기업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뤄왔으며, 공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역과 국민이 존재 이유인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셋째, 인천항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이행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첫 해입니다. 지난해 걱정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개장 시기를 한 차례 미룬만큼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운영시설을 확보하고 충분한 시험운영을 통해 여객안전과 원활한 화물처리 능력을 보유해야겠습니다. 특히 기존 터미널을 통합해 개장하는 만큼 기존 터미널 이용객과 선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시행

하고 꼼꼼한 운영준비를 통해 빠진 부분이 없도록 가장 직전까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천 신항 1-1단계 ‘컨’ 부두 완전 개장 이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새로운 부두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두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그 시기와 규모를 정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을 조성해 항만운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인천 신항과 남항, 북항 배후단지 공급에는 고객 요구와 물류환경 변화요인을 적극 반영하고 단순 보관기능을 넘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해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이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지속가능한 인천항을 위한 근원적 요소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치 양보 없는 태도로 완벽함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사고 관리수준을 높여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인천항을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항만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고 AMP 시설 확대 등 친환경 정책과 기술을 적극 발굴해 인천항이 환경 친화적인 항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 건정성 확보와 미래 성장전략 추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천항의 외적 성장에 맞춰 신규 부두 공급,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골든하버 개발 등 사업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부채와 금융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새로운 수입확보나 비핵심자산 매각에는 변동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위기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올해 경제여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컨티전시 플랜을 마련해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지역과 국회의 도움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 투자환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골든하버 개발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여객과 관광 비즈니스 인프라의 적시 구축을 통해 골든하버의 사업성과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항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공감은 우리 사업과 항만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결은 물론 정책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내항 재개발, 스마트 오토밸리 및 화물차 주차장 조성 등 중대 사안부터, 항만운영 서비스 개선 같은 작은 사항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내부를 시작으로 이해당사자,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아시아 해양 네트워크 포럼(가칭)’을 인천항에서 최초로 개최합니다. 그동안 지역에 머물렀던 소통이 세계로 확장되는 만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인천항을 대표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인천항만공사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공사도 어느덧 청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는 저를 포함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함께할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너지로 위대함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천항에도 아름다운 청춘의 봄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총물동량 3억2천만톤, 컨테이너 243만TEU 목표”**

다산과 풍요, 근검절약, 지혜와 총명, 끈기와 인내심 등을 상징하는 쥐띠 해의 활기찬 새해 아침을 맞아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 그리고 마음과 재물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꿈과 기대가 다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 취임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우리 공사와 여수광양항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공사와 여수광양항의 발전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방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게 계시는 분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지난해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디만, 사실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올해에는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해서 어떤 일이 닥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도 있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 채우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수·광양항을 해상물류가 육상물류로 변환하는 대륙을 향한 Y-루트의 변곡점으로, 지능화된 산업지원형 융복합 항만으로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운항만물류 R&D 기업을 유치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올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후단지의 확보를 위해 세풍산단 부지 확보 및 북측배후단지 개발 등에 적극 나서 자족형, 산업지원형 항만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배후단지에 우량기업을 지속 유치해 자체 물동량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선박 대형화 및 글로벌 추세에 따라 스마트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개발에 나서야 하고, 선진형 클린포트,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수광양항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벨트로 조성해 크루즈와 연안여객 이용객 확대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둘째, 여수광양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총물동량 3억 2,000만톤, 컨테이너 물동량 243만TEU를 올해 목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만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고질적인 체선문제와 상하차 지연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차질없는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과 납사부두 건설 공사 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내진성능 보강 등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광양항 컨부두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석 및 시설의 재배치 등 부두기능의 재정립에 나서야 합니다. 항만과 지역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양만권 석유화학, 철강산업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항만 및 관련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 지역 현실에 걸맞는 사회공헌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공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항만을 실현하고 항만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

안사고 제로 항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여건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 올하는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는 데 전 임직원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일터, 노동이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 청렴항만을 만들어 나갑시다. 또한 항만 이용고객,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민, 국민 등 모든 여수광양항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공사와 여수광양항이 신뢰받는 최고의 항만 물류 파트너임을 알리도록 합시다. 특히 배후단지 및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개발, 크루즈부두 확장 및 남해안 해양관광거점 육성 등 주력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살아있는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연수 및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중심 경영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2020년 올 한 해도 쉽지만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여수광양항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이 우리 공사와 여수광양항의 앞날을 빛나게 밝혀줄 것이기에 저는 든든합니다. 우리 스스로 회사와 여수광양항의 비전과 가능성을 믿고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모두 힘찬 파이팅으로 더 좋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더욱 경쟁력 있는 여수광양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배우고 생각하며, 살피고 풀어가며, 모으고 이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봅시다.



###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통합으로 완성한 선원노련, 2020 선원정책 현안 풀러”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새희망의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선원노련의 발전을 위해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원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압박이 거세었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에 맞서, 선원노련은 반대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었고, 산하조직과 유관단체의 연대 속에서 제도의 존치를 위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년간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결국에는 정부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사수했습니다. 우리가 뜻한 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단결해야 하고, 단결 속에서 얻어진 힘으로 선원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2019년은 일치단결을 실천한

한 해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 모두 죽고 만다는 뜻으로 정치권이 서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넘어 국민들까지 편싸움에 동조해 분열하고 있는 현실을 지식인들은 꼬집었습니다. 선원노련은 갈등과 분열의 파도를 넘어, 대동단결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연말 법인등기를 완료하며 통합의 모든 과업을 마쳤고, 하나의 연맹으로 온전한 2019년을 지내었습니다. 비 온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분열을 이겨낸 통합으로 완성한 선원노련의 2020년 전진에는 거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강력한 정책추진력으로 선원의 정책 현안을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가속화, 안전, 환경, 스마트화 주력”**

올해는 항만가족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표출된 한해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북미간의 비핵화를 놓고 살얼음판이 조성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 갈등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경제에 주름살이 더해졌습니다. 울산항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케미컬 선박의 폭발사고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 경기 악화로 울산항의 물동량이 뒷걸음치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산항의 안전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재구성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이 10%이상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울산항의 물동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처리한 것은 보이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특히나 6부두의 자동차환적화물 유치성공은 타겟을 잘 정해 전략적 화물유치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공을 더 탄탄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으로 조금 어렵다고 위축되거나 잘나간다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울산항이 개항한지 58년째 되는 해입니다. 개항 당시 백만톤에 불과했던 울산항의 물동량은 2억톤을 넘어 20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괄목할만한 양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에 신경써야할 때입니다. 같은 물동량을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울산항의 물동량과 공사의 매출액이 정체되더라도 울산항과 관련된 기업체들이 성장하고, 항만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다름 아닌 질적인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항만공사는 비전을 일찌감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에코스마트 항만’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 했듯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기본이 되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공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섯 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가속화입니다. 지난 해 11월 1단계 상부사업의 JVA가 체결됨에 따라 올 상반기 내로 상부시설을 착공토록 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오일허브 1단계 지역과 연계하여 배후단지 2공구에 LNG 관련 인프라를 연쇄적으로 확충하고, LNG 병커링까지 커버하는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경에는 용연동 일대가 LNG 관련 사업이 클러스터화되어 오일허브를 넘어 에너지 허브로 조성되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해 염포부두 폭발사고와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울산항에도 상당부분 보완이 되었습디다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관기관·기업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선박의 통항과 화물의 하역과정에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보완하는 한편,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훈련과 안전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셋째는 환경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항만도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IMO가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하는 첫해여서 선사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항

만을 운영하는 공사에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입항하는 선박의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확대운영하고 친환경선박 인센티브제도(ESI)를 연장하는 한편, 접안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설치한 정밀전광판을 통해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만의 효율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고입니다.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항만공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입니다. 웹기반 실시간 선석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박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계획수심을 확보하고 해저장애물 제거를 통해 대형선박 입항 여건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항만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또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스마트화'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항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스마트 항만물류사업을 올해는 더 심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분야의 R&D와 인재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정착될 때까지 육성하겠습니다.



###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쉽 없이 달려왔던 2019년 기해년을 마무리하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해양수산 업계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에도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역시 해양수산 분야에도 거세게 불어 닦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해운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고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혼신을 다했습니다. 또한 수산혁신 전략과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수산·어촌의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왔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플라스틱과 항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고, 해양수산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화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2020년에도 많은 도전이 기다릴 것입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와 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띠'의 해입니다. 쥐는 풍요와 근면을 상징하며, 그 중에서도 흰쥐는 매우 지혜롭고 생존적응력까지 뛰어나 우두머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행에 따르면 경자(庚子)는 '큰 바위에서 물이 팔팔 솟음', 즉 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 업계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혜롭고 생존적응력이 뛰어난 흰쥐와 같이 도전을 잘 이겨내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싱크탱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로운 도전의 큰 바위를 뚫고 성장과 발전의 샘물이 팔팔 솟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극한의 생존력 확보. 인재와 기술에 투자, 환경변화에 선제대응”**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우리의 수주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 발표된 기업결합 이슈와 생산 공정 안정화, 수익성 확보라는 내부 도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DSME 가치를 지켜내고 지속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임직원 모두의 일치단결된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단합된 의지와 헌신이 있었기에 고비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경영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넘어야 할 파고는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의 주요 지표인 환율과 유가 변동성도 여전히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고기량 인력 부족, 기피 직종 인력 수급 한계,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그리고 엄격해지는 하도급 관련법과 규정 등 노동환경 변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파고를 우리 스스로 돌파해 나가고, 독자 생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지난해 수주실적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네 가지 경영방침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극한의 생존 경쟁력 확보’입니다. 과거 수년간의 수주 부진으로 올해는 매출 및 조업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제반규정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원가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인 최소 2년치 이상의 수주 잔량을 확보해 조업도를 높이고, 수익성도 함께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떠한 시장가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영업 뿐만 아니라 기술, 생산 등 총체적 경쟁력을 갖추 때 비로소 수주가 가능해지는 만큼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에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기존처럼 마른 수건 쥐어짜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설계 및 생산 방식으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관리 및 기술 분야의 사무 생산성 혁신 활동도 강도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최적화 및 효율화를 달성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생존 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올해는 기업결합을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맞서 지혜를 모으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세계 최고의 조선사로서 세계시장을 누비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경영체제 확보 및 유사시를 대비한 건실한 재무구조 확립에 매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및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많은 만큼 고객군을 다변화하고, 건조 선종도 주력선종 일

변도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선 분야는 앞으로 회사를 끌어가는 주역으로 사업을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인력설비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양사업도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해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수주경쟁력과 생존의 기반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는 ‘인재와 기술의 DSME 실현’입니다. 과거 노동과 자본집약 산업이라 분류됐던 우리 산업은 이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됐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에 발 맞추지 못하면 경쟁사에 뒤처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상황’과 ‘승자독식 시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 ME-GI 개발로 LNG선을 싸늘이했던 좋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화두는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입니다. 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추진 제품을 개발하는 선도적인 조선업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조선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현장 기술자의 용접 품질이고, 엔지니어의 설계 품질이며, 연구 개발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리 보릿고개로 힘든 시기를 지내더라도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자원입니다. 인재와 기술이 우리에게 그 씨앗입니다. 불요불급한 투자는 줄일 것이나 미래를 위한 인재기술투자는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 지금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과감하게 부여하고, 과업을 수행하면서 점차 핵심인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인재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넷째는 ‘소통중심의 신뢰경영’입니다. ‘소통과 신뢰’는 불확실성이 일상화돼있고 끊임없이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상명하복식의 수직적인 의사소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세대나 계층, 협력사와 융화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종사 모두 지난 5년간 혹독한 시련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생존과 임직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협력사와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협력사의 장기적 자생력 확보 등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협력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활동이 동반돼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들이 먼저 희생하고 술선수범하며 언행 일치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철저한 윤리경영 실천이 바탕이 될 때 우리 대우조선해양은 활력 넘치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 하는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가족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과거 수많은 파도와 암초에도 좌초하지 않고, 극복하고 헤쳐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대우조선해양만의 탄탄한 자산입니다. 저는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가장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작업장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

**“초대형선 인수와 디얼라이어스 협력시작,  
새 이정표 세우는 전환점”**

작년 부진한 시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선대 관리와 고수익 화물 확보, 화물비를 비롯한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영업실적을 기대 이상으로 개선시킨 육·해상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우리는 THE Alliance 정회원 가입과 신조 VLCC 5척 인수, HPNT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 수익성 개선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SWAT실, 물류서비스전략TF를 새로 설치했고 해외지역 Back Haul 영업 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 조직 정비와 함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올 2분기부터 2만 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순차적으로 인수 받아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하게 됩니다. 4월부터는 THE Alliance 정회원으로서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얼라이언스 체제 하에서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톱 클래스 선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부가가치 제공이 급선무입니다. 업무효율성과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Value Chain 전후방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이어 탄소배출저감에 대한 규제 논의와 함께 글로벌 선사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와 첨단 선박 설계 기술에 대한 철저한 동향파악을 바탕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 R&D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경영환경은 작년까지 겪어왔던 것보다 더 불확실하고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브렉시트까지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선복량 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THE Alliance와 초대형선 투입으로 우리에게 분명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순풍일 경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풍일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임직원 여러분! 작년 3월 취임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만, 회사가 이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직원 행복의 바탕 위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제공하고, 고객의 Pain Point를 해결해줌으로써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선복량 100만TEU, 매출 10조원 이상, 고객감동을 통한 지속적 이익 창출, 생산성 1위에 근거한 최고 급여와 종업원 만족도 1위, 이것은 한국 해운의 완벽한 재건을 의미합니다. 직원행복에서 고객감동으로,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로까지 연결되고,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한국 해운의 완벽한 재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최고의 선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 나가십시다. We are on the same boat! 노력도 함께하고 보람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열매를 공유할 것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합시다. 특별히, 초대형선 인수와 THE Alliance와의 본격적 협력이 시작되는 만큼, 2020년은 현대상선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Full Ahead (전속 항진)!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최고 속력으로 전속 항진합시다. 다산,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흰쥐의 해, 경자년(庚子年) 2020년에는 현대상선 재도약을 꼭 이뤄냅시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 “고령화·저성장·저소비 뉴노멀로 자리잡아.. 성장 패러다임 품질과 부가가치로 전환해야”

지난해 우리는 세계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에 굴하지 않은 덕분에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9위 무역강국의 위상을 지켜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물량은 견실하게 증가했으며, 전기차·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과 서비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이 전체 수출의 1/4에 육박하면서 시장 다변화에 큰 진전이 있었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저변도 넓어졌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무한한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무역인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지난 반세기의 변화를 무색케 할 만큼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신흥국 경제의 성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작동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패러다임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변신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중간재를 중심으로 세계무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면서 생산거점이 이동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저성장·저소비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가운데 세계 무역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과 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출을 통한 실질적인 부가가

치 창출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구조, 제조 역량, 기업 생태계, 지원정책 및 규제 등 무역의 기초를 이루는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역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과 서비스·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과 품목을 더욱 다변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도 절실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무역협회는 올해도 무역구조 혁신과 선진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무역의 싱크탱크로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심층 연구하고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무역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편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생 유망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역의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수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무역센터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과 테스트베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잠실 마이스(MICE) 인프라 건립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병진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2020 FIATA 부산세계총회’ 성공적 개최 위해 홍보강화”**

지난해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침체, 미중 무역분쟁 영향 및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전반적인 저성장과 수출감소가 경제여건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2018년에 평화국면으로 전환되었던 남북관계가 지난해에는 다시 정체기에 진입하여 불안요소로 떠올랐고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대외적인 국면을 타개하고 우리나라의 물류강국 입지 강화와 물류산업 도약의 큰 기회가 될 ‘2020 FIATA 부산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관련기관 및 업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해외 물류협회, 관련기관 및 물류 전문가들의 참석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0 FIATA 부산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월 본부회의 참석, 5월 FIATA 총회 실사단 부산방문, 6월 태국 RAP 회의 참석 및 9월 남아공 총회 참석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와 물류산업 전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운영 기관으로 8년 연속 선정되었을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 교육을 통하여 국제물류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물류 전문가 육성과 업계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청년 실업 해소 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업으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대외 협력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협회와 회원사간 소통 증진을 위한 회의 개최와 행사 추진 등으로 한 해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2020 FIATA 부산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0 FIATA 본부회의, 베트남 RAP 총회 및 CCTT 총회 등에 참석하여 활발한 개최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더불어 2020 FIATA 부산 총회 참석에 다같이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자년 한해 회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회원사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해양한국 모바일 홈페이지**  
www.monthlymaritimekorea.com



‘해양한국’이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웹페이지 ‘모바일서비스’와 함께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Facebook’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심도있는 분석’이라는 편집 모토를 내걸고 해양한국 인터넷판이 매일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PC로 찾아갑니다.